

가정수련활동 현장운영모형개발연구*

한 승 회**
정 회 욱
황 진 구
정 윤 경
이 재 택

- I. 개발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 II. 가정수련활동의 배경
- III. 가정수련활동 운영모형
- IV.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 V. 제언

I. 개발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은 인간 형성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첫번째

장이고, 또한 제일 중요한 장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안정은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에 와서 가정은 이러한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학교나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으며, 그 기능이 소홀히 되고 있다. 마치 학교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정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당사자인 부모들도 가정의 이러한 중요성을 자칫 간과하고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다른 어느 곳에서의 수련활동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학습은 주로 경험, 체험, 그리고 모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체험을 원한다. 어떤 체험은 따분할지라도 그들은 그 결과가 보고 싶기 때문에 수고를 한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5년도 연구사업인 '가정수련활동 현장운영모형개발연구'를 요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한승회(원, 공주교육대학교수), 정회욱(선임연구원), 황진구(선임연구원), 정윤경(위촉연구원), 이재택(객원연구원) 임.

다. 부모가 이러한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제일 중요한 교육 장소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에게나 학업에 지친 자녀에게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장소이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자연 환경적 변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시간을 선용할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찾게 되는 전자오락, 심야극장, 락카페와 같은 도시과밀지역의 유해한 흥행위주의 상업적 여가활동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련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활동이 바로 가정 수련활동의 기본을 이룬다.

가정에서의 첫번째 수련활동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다. 두번째는 수련활동은 가족들이 함께 행하는 활동들이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주로 가족이 모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 실시되거나,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

-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

의 공동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 부모는 직장 일에, 자녀는 학업에 바쁘다.
-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수련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시행 방법을 모른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2년부터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거리들과 실시 방법을 담은 많은 청소년 수련거리 기본형을 개발하여 왔으나 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원은 연구 주체로, 가정은 실행 주체로 함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문화는 생활 양식으로 실천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가정에서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거리와 수련거리 실시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덕체지를 두루 갖춘 전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련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을 그 목표로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정 수련활동 전문가 및 부모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1995년 7월29일(토)에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수련거리 운영에 관한 부모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자료집

이 나왔다. 그리고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 3일간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족들이 함께 꾸며보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결과로 많은 가족들이 좋은 체험담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1995년 8월 19일(토)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 평가회’에서는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통하여 평소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족의 특징들, 우리가정에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 우리가족들의 수련활동에서 좀더 보충하고 싶은 점, 혹은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정문화를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활성화가 잘된 수련활동 사례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다.

II. 가정수련활동의 배경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유를 주면서도, 공동의 시간과 활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사랑해 주고 책임감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억압하여서는 안된다.

부모가 지도자인 동시에 활동의 공동참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자녀와 부모의 상호의존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소와 시간, 조건 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련활동들이 특히 적합하다.

수련활동의 활성화, 특히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에는 지도자인 부모의 동기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1. 가정수련활동의 의미

가족간의 언어적, 행동적, 태도적 상호작용이 가정에서의 첫번째 수련활동이며 이는 두번째 수련활동의 바탕이 된다. 두번째 수련활동은 가족이 같이하는 활동들이다.

가정 수련활동은 자발성에 의한 체험이며, 생활속의 활동 및 교육이다. 체험은 부분적인 경험이나 배움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 간의 개방적이고 서로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가정 전체가 공동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족이 같이하는 여가활동, 체험활동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여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인 동시에 평생을 통하여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가정수련활동의 목적

아이들을 착하게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수련활동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사회전체의 행복 및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자신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녀와의 대화 기회 마련
-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강화와 민주적 가정으로 가는 기회 제공
- 자녀와 친밀감을 갖는 기회 마련
- 부모와 자녀의 여가활동의 기회 마련
- 부모 및 자녀가 함께 배우는 교육적 기회 마련
- 자녀의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기회 마련

3. 가정 수련활동의 중요성

가정 수련활동은 동기유발적인 측면, 재충전적인 측면, 전인 교육적 측면, 윤리적 측면을 가진다. 수련활동의 이러한 측면들은 가정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다. 이를 차례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동기적 측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 자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이다. 어떤 일이 자신의 본능과 적성에 맞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다. 깊은 의미의, 온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기쁨은 많이 향유하면 할수록 그만큼 삶이 더 깊고 풍부해지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더욱 강해진다.

자기가 진정으로 잘하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정열과 동기와 창조성, 참신성이 되 살아난다. 존 가드너(1979)는 그의 저서 ‘자아 혁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의미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만한 정력의 원천이 생기고 있음을 여실히 목격한 바 있을 것이다. 자아 혁신적 인간은 만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커다란 자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일로써 커다란 관심을 가질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을 추구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누구든 본업으로서 또는 부업으로서 자기가 깊은 관심을 갖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아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권력이 강해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몹시 좋아하는 일을 그만 두고까지 하등 흥미 없는 일터로 옮겨간다. 또한 중년기의 사람들이 전혀 취미가 없는 활동의 틀 속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일체 청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조그만 한 가지 일, 즉 불타는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청신해지고 혁신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활기의 원천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의 그릇된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가 진실로 믿고 있으며 또한 그가 온 정성을 바칠 수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삶에 대한 정열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즉 자연과 직접 접촉하고 동료 인간들과 정면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혁신하려고 노력한다.

휴식적 측면

강철왕 카네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의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집은 어린이 놀이터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항상 가정의 영향이야말로 아이들을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가정을 즐거운 낙원으로 정화하는 것이 첫째 되는 일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들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근처의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였다.”

수련활동은 휴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일만 할 수는 없다. 휴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청소년들의 생활과 공부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휴식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의식이 비명을 지른다.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이 비명을 지른다. 제발 멈추라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탈이 생긴다. 청소년들의 삶이 최소한 때로는 즐거워야 하고, 또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 측면

짐승의 새끼들을 보면 장난을 많이 하고 또 잘 노는 데 그것이 사실은 자라서 할 일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연은 역시 현명하다. 재미가 있어야 많이 배우고 잘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하고 노는 가운데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비교적 원시 종족(원시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다)의 어린아이들도 신나게 노는 가운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문명인의 눈으로 보면 혹독하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 훌륭히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불룸에 의하면 나중에서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강요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완전 학습의 창시자인 불룸은 여러 분야를 빛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공부에 대해서 타율적인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온몸으로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할 때, 눈부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자유와 사랑 속에서만 아이들은 온몸으로 배울 수 있다. 많이 배운다. 쉽고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은 항상 배운다. 길을 걸으면서도 배우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배운다. 특히 놀면서 많이 배운다. 잘 놀면 그만큼 많이 배운다. 온 정신이 다 팔려서 놀 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체험적 배움을 얻는다. 부모들의 무리한 계속적인 강요로 배움이라는 평생 즐거움을 평생 피로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윤리적 측면

수련활동은 그 목표로 청소년을 자유롭고도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내부의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는 제가치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폴 탈릿히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면상 모순같이 보이는 자기긍정과 자아를 초월한 헌신이라는 요구조건은, 인간이 스스로를 보다 큰 조화를 반영하는 존재로 보고, 또 우주의 창조과정에서 책임을 부담한 존재이며 또한 대우주의 창조과정에 대한 현미경적 참여자라고 간주할 때 거의 완전히 해결된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성숙한 개인은 그의 격동적인 작은 자아에 대한 봉사보다도 좀 더 큰 무엇에 대한 헌신, 즉 종교적인 헌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 사회적인 계획과 도덕적인 질서를 위한 헌신을 한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상태 혹은 조건들, 즉 만족을 주는 것, 안락, 오락 그리고 모든 목표를 달성한 상태는 실상 인간의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 완전한 만족으로 본 행복은 인간이 열망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이다. 행복은 단순히 안락과 유쾌함이고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욕망이 충족됨을 뜻하는데 반하여 보다 진정한 행복은 뜻있는 목표, 즉 개인을 보다 큰 체제에서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시키는 것이 내포된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유쾌한 휴가에 관련되나, 진정한 행복은 목적 있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 책의 행복은 하릴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모든 형태의 유쾌를 포함하나,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4. 가정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

가정에서 수련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주어진 상태에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체험활동을 정기적으로 행하며, 이러한 체험활동에서 최소의 비용(노력, 시간 및 예산 등)으로 최대의 효과(의미있고 즐거운 활동, 생활의 활력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직업이나 공부 외의 삶의 질, 즉 체험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활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목표를 잘 성취해 나가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의 활성화는 부모 자녀간의 신뢰형성, 체험활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동기,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에 달려 있다.

5. 수련활동의 이상

수련활동에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유대,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스스로 조직하여, 아무 간섭이나 지시없이 자유롭게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수련활동의 이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청소년들에게는 통제나 규율 못지 않게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의지력을 심어준다. 자유로운 생활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자유로울 때 청소년은 전 인격으로 세상에 대처하며 살게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지적인 것 뿐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

다.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는 데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의 원천이 되는 느낌과 생각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교육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수련활동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수련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사랑과, 자유와 사랑에서 파생되는 기쁨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와 사랑과 기쁨으로부터 청소년들은 스스로 피어난다.

청소년들에게는 모든 부담과 간섭을 벗어 던지고 긴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활동의 기쁨에 온전히 잠길 시간이 있어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지금—여기(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음이 병들고 탈선하게 되는 것이다.

삶과 삶과 사랑이 모두 한 어원인 삶에서 나온다. 깊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곧 배움이요 사랑이요 수련활동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묻고, 관찰하고, 배울 때,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진리 혹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지성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세계에 단지 적응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야 한다. 청소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청소년들은 탐구할 수 없으며, 관찰할 수 없으며, 배울 수 없으며, 깊은 자각 상태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련활동의 기능의 하나는 외적으로 뿐 아니라 내적으로 인간의 사고, 인간의 관계, 사랑을 파괴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두려움이 없는 자유의 분위기,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자유가 있는 환경에 속하는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상적인 수련활동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자유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6.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교육이나 수련활동이 똑같이 청소년에게 더 많은 책임의 능력을 부여해주려는 활동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고 수련활동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유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수련활동을 하고, 배우는 청소년의 모습은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자율의 능력,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을 믿는 자유의 분위기가 창조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소년에게 신뢰를 보이는 태도일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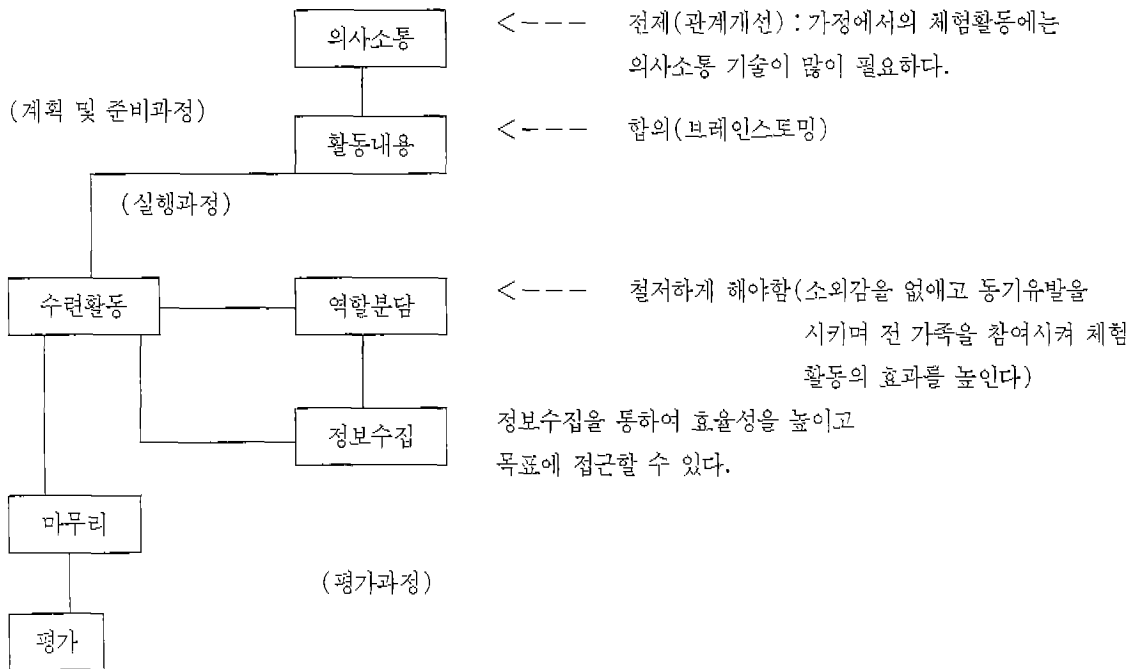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책임있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격자원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이것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결정에 관여할 기회를 갖거나 갖게 된 많은 학생들의 아주 자립적이고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서 더욱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진지함, 관심, 그리고 적지않은 조직적, 정치적 기술이 나타난다.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의 기대와 요구를 가진 집단 환경 내의 호의적이고 자아지지적인 상황은 관계와 행동상의 성숙을 도모시킨다(전재일, 1991).

III. 가정수련활동의 운영모형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첫째로 수련활동의 목적이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로 시행할 수련활동이

선택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넷째로 실행 준비를 하고, 다섯째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여섯째로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수련활동 목적 확립과 활동 선택은 계획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는 수련활동 단계의 기본틀을 계획, 준비, 실행, 평가의 네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가정수련활동의 단계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에서는 기본틀의 모든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련활동은 참여자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가족회의 형식이 좋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①미리 제한 조건들을(비용, 시간, 노력 등)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제한 조건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②가족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수련활동들을 생각해 내어 목록을 만든다. ③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적절한 수련활동을 선택한다. ④창조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낸다. 가정에서의 수련활동은 가족들의 흥미나 욕구,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가정수련활동 운영모형에 입각하여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실시하였다.

IV.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

현대사회의 생활양상이 점점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 수련거리의 유형도 가족단위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에 의해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이외의 집단활동 참여 기회가 대폭 줄어들고, 주말을 이용한 가족 중심의 여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가족과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로 하여금 수련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수련거리 개발은 한층 절실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및 경주시의 후원 하에 1995년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2박 3일간 「가정 수련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가족들이 함께 꾸며보는 ‘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개최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이 운영하는 이 행사는 어느 행사와는 다르게 참가 가족이 꾸며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활동연구팀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수련활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은 실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사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려준다는 의미 외에도, 가족이 함께 땀흘려 자전거를 타고 기행을 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화합을 돕는 활동이다. 이밖에도

교통, 에너지, 주차, 환경, 여가 활동 및 건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대간의 단절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누가 먼저, 어떻게 그 벽을 허물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같이 힘든 일을 할 때 친해지고,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땀을 흘려가며 문화와 역사 유적지를 기행할 때, 이러한 벽은 허물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자전거는 에너지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환경 문제, 여가 활용 및 건강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자전거는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용의 수단이다. 또한 운동이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운동이 된다. 특히 관광지에 자전거 도로를 잘 닦아 놓고, 자전거 대여가 용이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상쾌하게 도로를 달려가면서 여유 있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자원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재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것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한다. 신라시대 때에 경주에서는 그늘음이 생겨서 도시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숯으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상을 슬기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이것은 또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자전거의 이용은 승용차 문화에 밀려 오히려 사양길을 걷고 있었다. 전철역에 주차장은 있어도 좁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은 없었다. 승용차 한대의 주차 공간에

자전거 20대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가까운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차 문제, 교통 문제, 공해 문제, 에너지 문제가 완화되겠는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문화체육부와 내무부, 경주시의 후원 하에 청소년개발원에서는 8월 7일, 8일, 9일, 2박 3일간 경주 자전거 문화기행을 개최하게 되었다.

♣ 경주 가족 자전거 문화기행

개최취지 건전한 가족 수련거리로-건강은 물론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자립, 근면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자전거 문화기행을 제공하고자 함. 기존의 가족캠프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가 꾸미고 자녀들이 만들어 가는 캠프로 운영, 매 과정마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분담,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 수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배려함

일 시 1995년 8월 7일~9일(2박3일)
장 소 경주일원, 경주 하일라 콘도, 동해안
대 상 1차/3~4인 가족 12팀(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등 2인 가족도 참여 가능, 어린 아이는 뒤에 싣고 다닐 수 있음)
인 원 45명 내외
주 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
후 원 문화체육부, 내무부, 경주시
참가신청 한국청소년개발원 활동연구팀의 정회
육 선임연구원
(☎: 578-7924) 선착순 45명에 한

함(3~4가족 우선권이 있음)

참 가 비: 부모 45,000원, 자녀 30,000원

자전거 이동코스(각 코스별 문화를 접하면서 프로그램 실시)

8/7(월) 하일라콘도 → 분황사 → 황룡사터 → 유적기념관 → 현덕왕능 → 황성공원 → 하일라콘도

8/8(화) 하일라콘도 → 통일전 → 안압지 → 반월성 → 침성대 → 계림 → 박물관 → 천마총 → 오릉 → 포석정 → 남산 삼릉 → 하일라콘도

8/9(수) 하일라콘도 → 불국사 → 석굴암 → 무열왕릉(버스로 이동) → 동해 대왕 해수욕장(한시간 휴식) → 서울(밤 9시 도착)

V. 제 언

1. 정책적 제언

○ 수련활동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여건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및 공원 시설, 학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공공 시설 개방, 스포츠 시설, 청소년 센터 등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그리고 가정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주민의 여가생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우리나라 현실정에 맞게 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여건 개선이 중요하

다.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 특히 일선에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직업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라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아도, 나이가 20대 중반만 넘으면 떠날 생각을 한다고 한다.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 관심, 정열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을 가진 수련거리라 하더라도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진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 지도자들의 작업 여건이 열악할 때, 수련활동에 대한 열의나 동기도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2. 부모에게의 제언

이 연구를 해 오면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서의 자유와 자율의 중요성이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면서 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꽃 피어나게 할 여유와 자유를 가질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긴장이완을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온몸으로의 체험을 통하여 삶을 체득해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지 말고 주체로 보고서 선택

권과 자율성을 주며,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문화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선택권을 주어져야 한다.

3. 프로그램에 관한 제언

○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에 참여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 5월이면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 아까워 1994년부터 동네 사람들끼리 ‘아카시아 축제’를 열기로 하였다고 한다. 1994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1995년에는 서울 시립대 농악놀이도 참여를 하였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여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동네에서 축제라든가 건전한 놀이 문화, 레저 문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족끼리의 체험활동도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좋다. 경주가족자전거문화기행을 마친 후 평가모임에 참여한 가족들이 계속적인 가족 체험활동을 위한 조직을 위하여 회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다.

참 고 문 헌

- 권두승. 1994.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이중 외. 1987. 청소년활동프로그램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정철. 1986.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김성수·권일남. 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호. 1994.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문이당.
- 김은경. 1994.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명 외. 1991. 청소년활동동기부여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정명. 1993. “청소년활동의 전개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세진. 1992.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사라. 역음(1995). 노는 게 배우는 것이다, SBS프로덕션.
- 문화체육부. 1994. '94 청소년 수련활동 사례집,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 1995.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 문화체육부.
- 박명운 외. 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성희. 199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운빈. 1991. 종합레크리에이션, 금광.
- 배호순. 1994. “프로그램 평가의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1993. 레크리에이션 대백과, 세광음악출판사.
- 윤구병. 1995. 실험학교이야기, 보리.
- 이부근. 1994. “프로그램의 계획”,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시형. 1982. 배짱으로 살아라, 집현전.
- 이옥분. 1994. “집단 및 집단활동의 이해”, 집단지도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택·김동열. 1994. 한올타리 가족 이야기, 상조사.
- 이종각. 1990.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전국계. 1993. “청소년활동의 관리와 운영”,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재일. 1991. 「집단지도론」, 형설출판사.
- 전략기업컨설팅 조직학습 연구회. 1995. 「게임학습리더」, 전략기업컨설팅.
- 조용하. 1990. 「야외교육활동론」, 교육과학사.
- _____. 1993. “청소년활동의 기초”,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진용석. 1991. 「현장에서 본 프랑스 교육」, 서당.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992. 대활동 우수프로그램자료집,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2.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위한 계획,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2. 대원 프로그램 개발방법,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94 청소년 수련광장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수련거리개발 기본계획,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8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연맹. 1986. 누리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연맹.
- 홍영희. 1992, 새부모교육, 학문사.
- 김지영. 1984, 청소년단체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
- 신인숙. 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가나모리 우라코 지음, 장운정 옮김. 1995. 이런 엄마가 아이를 망친다, 동풍.
- 니일 지음, 김은산 옮김. 1992. 서머힐, 양서원.
- 니일 지음, 김은산 옮김. 1994. 방종이 아니 참자유, 서원.
- 니일 지음, 김영숙·조정아 옮김. 1992. 문제의 부모, 양서원.
- 버트란트 러셀 지음, 김영숙 옮김. 1989. 러셀의 자녀교육론, 서광사.
- 리처드 바이햄 외 지음, 이상욱·장승권 옮김, 자율경영팀, 21세기북스.
- 마이클 램, 편저, 김광웅·박성연 옮김. 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이화여대 출판부.
- 스포크 지음, 박순환 옮김. 1989. 청소년 교육, 정음문화사.
- 존 가드너 지음, 이철희 옮김. 1979. 자아혁신, 탐구신서.
- 주디스 보그타·케네스 머렐 지음, 김성구 옮김. 1995. 경영혁신 임파워먼트, 고려원.
- 칼릴 지브란 지음, 강은교 옮김. 1992. 예언자, 문예출판사.
- 토마스 고든 외 지음, 김인자 옮김. 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토마스 고든 지음, 이형득 외 옮김. 1988.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 피츠 도오슨 지음, 이원호 옮김. 1983. 아버지의 자녀교육, 탐구신서.
- 하임 기너트 지음, 이순일 옮김. 1994. 10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135가지, 매일경제신문사.
- 하임 기너트 지음, 김순희 옮김. 1987. 부모와 아이들 사이, 종로서적.
- Clark E. Moustakas & Cereta Perry. 1973. Learning To Be Free, A Spectrum Book.
- Dorothy Corkille Briggs. 1986. Your Child's Self-Esteem : The Key to Life, Dolphin Books.
- Fitzhugh Dodson. 1969. How to Parent, A Signet Book.
- Grace Rotzel. 1971. The School in Rose Valley, Ballantine Books.
- John R. Kelly. 1987. Recreation Trends, Sagamore Publishing.
- Lee Bennett Hopkins. 1969. Let Them be themselves, Scholastic Book Services.
- Leo B. Hendry, etc. 1993. Young People's Leisure and Lifestyle, Routledge.
- Michael E. Cavanagh. 1980. Make Your Tomorrow Better, Paulist Press.
- Oscar Lewis. 1963. The Children of Sanchez, Vintage.